

대 학 평 의 원 회 회 의 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7.12.28.
의원수 : 11명	출석의원수 : 9명

1. 회의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2시

2. 회의장소 : 대회의실(9동 2층)

3. 의원 출결 현황

이명환, 김택균, 양용원, 김용태, 김용걸, 이광성, 한기복, 장선훈, 강수훈 등 총 9명
(불참자 : 정충량, 조미경)

4. 회의안건

- 1) 제1안 : 2017학년도 제3차 학칙개정(안) 심의
- 2) 제2안 : 2018학년도 교육과정편성(안) 자문
- 3) 제3안 : 대학발전계획 재수정(안) 심의
- 4) 제4안 : 교비회계(2017학년도 2차 추경예산 및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 자문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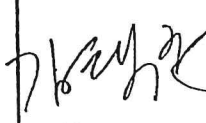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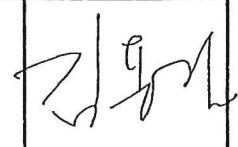
5. 회의내용

[의 장] 추운날씨에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전보건대학교 대학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참석에 의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 진행에 앞서 제41대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어 평의원회 의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리고 금일 안건은 총 4개로 제1안은 2017학년도 제3차 학칙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이고, 제2안은 2018학년도 교육과정편성(안)에 관한 자문, 제3안은 대학발전계획 재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이고 제4안은 교비회계(2017학년도 2차 추경예산 및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한 자문의 건으로 각 안건을 상정한 주무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다고 말하고 제1안과 제2안을 주무부서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교무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무처 유국봉입니다. 2017학년도 3차 학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직제 변경에 따라 학과를 학부에 편성하게 되어 학부 명칭을 반영하는 것(학칙 제5조)과 2018학년도부터 3개학과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신규로 개설되기 때문에 대상학과들의 명칭과 입학정원(학칙 제5조의2) 및 학위 명칭을 표시하는 것(학칙 제53조)이라고 설명하다.

[의 장] 이에 의장은 각 의원에게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에게 질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김용걸의원] 의무행정정보과의 경우 학과명칭변경을 하면서 올해 기존 학과명인 의무행정과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역시 학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주무부서의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묻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용걸	
------------	---	------------	--	------------	---

[교무지원팀장] 금번 개정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 교수님들과 상의하여 필요시 명칭을 변경하여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다.

[의 장] 의원들에게 더 이상 질문이 없는지를 묻다.

[이광성의원]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상정된 내용과 같이 심의해 줄 것을 제청하다.

[각 의원] 이광성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다.

[의 장] 이에 학칙개정에 대한 심의 안건은 상정된 내용으로 심의되었음을 의결하고 다음 안건에 대한 주무부서의 설명을 요구하다.

[교무지원팀장] 다음 안건인 2018학년도 교육과정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다고 말하고 주요 내용은 대·내외적인 교육트렌드를 반영하여 인문교양교육과 기초과학교육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 연계성을 가지며,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전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다. 또한 기존에 비해 교양교과목의 학점 이수 비율을 5%정도 늘렸고, 전공이수학점도 이에 비례해 상향조정 하였으며 교양교과목 구성 영역도 기존에 인문사회영역, 글로벌영역, 창의융합영역 등 세 가지 영역이었는데, 기초과학영역을 신설하여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고 설명하다. 개편에 따른 각 이수구분별 학점 비율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또 다른 특징은 학과에서 개설할 수 있는 최대학점과 졸업학점을 일치시켜 학생들이 전공교과목과 더불어 교양교과목에도 수강이 용이하도록 조정하였다는 것으로 다만,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직교과목, 특성화지표에 들어가는 창업교과목, NCS교육과 관련된 교과목들은 학과에서 총 개설학점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설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2019학년도 통합예정이거나, 학제가 개편되는 학과들은 잦은 교육과정 변경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는 배제하고 2019학년도에 개편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며 일부학과에서는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임 교원의 구성과 향후 계획을 반영하여 기존에 있던 교과목들 중 일부를 수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의 장] 각 의원들에게 교육과정 편성(안)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해 줄 것을 요청하다.

[김용걸의원] 인문사회영역, 글로벌 영역, 창의융합영역, 기초과학영역은 교양 선택이고, 교양 필수는 별도로 있는 것인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사회봉사교과목과 NCS직업기초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고 답변하다.




[김용걸의원] 교양 선택으로 개설되는 과목이 87개 과목이고, 학생들이 수강하는 학점이 14학점인데 이런 경우 폐강되는 교과목이 많아 질 것 같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다.

[교무지원팀장] 의원님 의견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았고 운영주체인 인문기초교양학부에서도 기존에 폐강되었던 교과목을 분석하여 개설교과목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편성에 심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하다.

[한기복의원]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편입학이나 학사학위를 받고 신입학하는 경우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진학 학과의 교과목과 비교하여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김택균의원] 편입학 관련하여서는 가능하면 기 이수한 교양과목은 인정을 해주고 전공교과목에 치중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용걸	
------------	---	------------	--	------------	---

[의 장] 학생들은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수업을 따라가는데 현재 교과목들은 학생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교과목으로 판단되고 학생들의 이해도가 학년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의도는 좋으나 경영면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심도 있게 학과와 상의를 거쳐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강수훈의원] 교양 최소이수학점이 졸업할 때 이수해야하는 것인지 묻고 현재 3년제 기준 교양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으로 2학년에는 전공수업을 듣고 3학년에는 국가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으로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인데 교양이수학점이 늘어나면 더욱 힘들 것 같다는 판단으로 차기 교육과정편성에는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다.

[교무지원팀장] 학생이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을 수강하는데 있어 최대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으로 계획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다.

[의 장] 교육과정의 개편 내용 중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과 학과의 과목에 대한 일치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본인의 전공분야를 터득할 수 있는 영역이 포함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연계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는 학과 교수님들과 상의를 거쳐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융합이 가미된 교과목들을 편성하도록 하는 취지의 자문내용을 반영해 주기를 요청하다.

[교무지원팀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일정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2학기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다.




[의 장] 의원들에게 더 이상 질문이 없는지를 묻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앞서 언급한 자문내용을 다시 한 번 주무부서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다음 안건에 대한 주무부서의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윤호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재수정에 대한 추진배경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현정책의 반영 등 개선필요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대학의 사업, 주요 안건들의 정책방향이 변경되어 세부추진과제의 계획의 일부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매칭 시키는 것과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대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수정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재수정을 위한 대학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2017년 7월경부터 위원회와 행정부서가 협의를 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추진과제를 수정하게 되었고 7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와 비정기적인 회의를 포함하여 9차례정도 진행을 하였고, 또 팀·센터별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재수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세부사항은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세부적인 수치에 대한 수정과 부서 등 명칭변경에 따른 수정,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과정개발과 대학의 정책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설명하다.

[의 장]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지 의원들에게 요청한 후 별다른 의견이 없자 각 의원들에게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 줄 것을 말하다.

[김용걸의원] 발표자료 17페이지에 교육평가인증센터 구축이라고 변경 전에 되어있고, 변경사항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대학구조개혁평가인증센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다.

[기획예산팀장] 기관인증평가, 작업치료과 인증, 간호 인증 등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평가인증센터로 명시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용걸	
------------	---	------------	--	------------	---

[김용걸의원] 추진부서는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다.

[기획예산팀장] 누락된 추진부서는 수정하겠다고 답변하다.

[이광성의원] 비공인 학과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인 인증기준을 벤치마킹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뜻인지 묻다.

[기획예산팀장] 인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버겁다 보니 학과 간호인증, 작업치료과 인증, 교육과정 평가 등의 대외 공식적인 평가들을 벤치마킹하여 학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다.

[김용걸의원] 발표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지원센터로 되어있는데 현재 있지 않은지 묻다.

[기획예산팀장] 센터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대로 표기를 해놔야 이후에 있는 평가 매칭이 될 것 같아 변경을 한 것이고, 다문화 학생 지원도 장애학생 지원과 같이 있었는데 별도로 구분을 하여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구분을 하였으면 하는 학생처의 의견이 반영되어 구분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장선훈의원] 장애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에 있는 HIT-eco Campus의 정의가 무엇인지 묻다.

[기획예산팀장] 학생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내 정화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한기복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왜 장애 및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이 아니고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확보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은지 묻다.

[기획예산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처와 상의를 하여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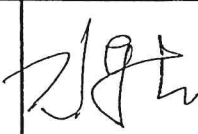
[의 장] 더 이상 의견이 없는지 묻다.

[김용걸의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이의가 없어 동의를 제청하다.

[각 의원] 김용걸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다.

[의 장] 이에 대학발전계획 재수정(안)에 대한 심의 안건은 상정된 내용으로 심의의결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기획예산팀장] 다음 안건인 교비회계(2017년 2차 추경예산, 2018학년도 본예산)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2017학년도 2차 추경예산 편성(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597억원에서 680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기타기금적립을 변경하여 편성한 결과이고 그 외에는 HRD사업 보조금지원에 따른 수입액과 지출액의 변동이라고 설명하다. 특히, 2016년 12월에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기타적립금으로 설정한 후 학교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면서 목적을 설정해놓고 사용하도록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1차적으로 92억원 정도를 특정목적기금에서 임의건축기금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50억원 정도는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학생지원기금과 관리운영기금으로 목적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고 설명하고 다음은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관한 내용으로 2017학년도 2차 추경대비 전체금액은 72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사유는 치의학센터, 학술정보관, 행복기숙사 등 건물신축에 들어가는 비용과 HRD사업단 보조금 증가와 국가장학금 증가로 인하여 수입액과 지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등록금 편성은 현재와 변동 없는 것으로 예측하여 편성하였고 관리운영비는 건축경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며 보수는 호봉 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마지막으로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다고 말하고 기관인증평가에서 수입과 지출의 예산에 대한 계획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자원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인건비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예측하여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의 등록금 수입과 비용지출에 대한 예산을 예측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용걸	
------------	---	------------	--	------------	---

비등록금은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의 경우 건축비로 인하여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2020학년도 금액을 1년 예산의 정상적인 금액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친다.

[의 장] 설명해주신 교비회계 편성(안)과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각 의원들에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며, 예산편성 간 특이사항에 대하여 묻다.

[기획예산팀장] 등록금도 계속하여 동결되고 있고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수입액이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차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다.

[의 장] 더 이상 질문이 없는지 의원들에게 묻고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편성과 재정운영계획은 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계속되는 등록금동결이라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하며 금일 부의된 안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자문 및 심의를 했고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부의안대로 확정하고 회의를 마칠 것을 말하다. 이어 회의록의 간서명은 의장과 김택균의원, 김용걸의원이 하기로 의원들간 합의하고 회의를 종료하다.(15:32분 산회)

2018년 1월 24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평의원 : 이 명 환

평의원 : 김 택 균

평의원 : 양 용 원

평의원 : 김 용 태

평의원 : 정 충 량

평의원 : 김 용 걸

평의원 : 이 광 성

평의원 : 조 미 경

평의원 : 장 선 훈

평의원 : 한 기 복

평의원 : 강 수 훈